

#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기틀 마련

## 임실군, 읍·면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진행

임실군이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기틀 마련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0년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자원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 설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마을복지 계획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을복지계획은 읍·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직접 발굴·조사하고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설정,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각 읍·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해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해 실행한다. 앞서 임실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020년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성공하는 마을복지 9가지 원리'에 대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가 컨설팅이 취소됨에 따라 읍·면을 대상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위한 마을복지계획 구성, 읍면 협의체와 민관협력력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공유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마을복지 기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읍·면 마을복지계획은 3월 중 통합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확정 후 각 읍·면에서 다양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실행될 예정이다. 마을복지계획이 수립되면, 많은 지역민들이 촘촘하고 안전한 보호체계 안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군수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 중심의 복지체계를 직접 마련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을마다 특색을 살린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주민들이 행복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관리반 운영

## 임실군, 전담공무원 50명 배치

임실군은 20일 보건의료원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교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자가격리자 발생 시 보건의료원, 안전관리과 등 공무원 50명을 '자가격리자 1인 1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격리 전담공무원 행동요령,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전담관리반은 공무원 1명이 자가격리자 1명을 보살피는 1대1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일일건강 체크, 생필품 지원, 배출의 안

전처리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은 지난 1월부터 발열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발생하거나 중국 등 해외방문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 등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자가격리자 1인 1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특히, 버스터미널 등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전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내에서도 한명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농기센터,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생 모집

###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국가기술자격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농식품 창업에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식품가공영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축·수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보급하고 실제 농산물 가공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급하려는 것이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8월 까지 매주 화요일 총 19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

가기술자격 시험일정과 내용에 맞춰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필기시험은 식품의 성분·영양 등 기초를 평가한다.

또한 실기시험은 사과젤리제조·연식제품조성 실습으로 구성돼 있어, 자격증 취득 후에는 각종 농·축·수산물 가공업체, 제과 및 제빵업체, 식품저장업체, 식품첨가물업체, 냉동 및 냉장업체, 기타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교육생 모집은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이며 모집인원은 25명이다.

교육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접 방문 및 팩스(063-635-0805)로 접수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읍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입구 도로 정비

순창읍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석준)은 20일 순창읍 성현마을과 모토고개마을 도로 토사제거와 임도 낙엽 제거 활동을 벌였다.

이날 방재단원 20여명은 트랙터 장비로 마을 입구 도로 및 임도 낙엽을 제거하고 쌓여진 토사를 삼으로 작업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순창읍 방재단은 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석준 단장을 필두로 순창읍 지역의 재난 예방 활동과 재난홍보 캠페인 등을 실천하고 있다.

김석준 단장은 "성현마을에서 모토고개까지 구간이 쌓인 토사와 낙엽이 매우 많아 평소에도 위험한 지역이었다"면서 "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한 곳을 먼저 살피기 위해 오늘 작업을



수행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읍민들이 더욱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리산 달빛고원 인월 한 고향 운동전개

## 남원시 인월면, 사업수익 1% 기부

남원시 인월면(면장 양선모)은 '지리산 달빛고원 인월 한 고향' 운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월면에 연고가 있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 가정의 축의금, 조의금이나 각 사회단체 등의 사업수익 1%를 기부한다는 운동으로, 매월 후원하는 정기기부와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후원하는 일시기부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전달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인월면사무소(063-620-4071, 4074)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20일 이장단 결의식을 갖고 지리산 달빛고원 인월 한 고향운동을 상시 실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월면 내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며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원시 인월면(면장 양선모)은 '지리산 달빛고원 인월 한 고향' 운동을 전개한다

이동식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리산 달빛고원 인월 한 고향 운동을 통해 작은 것이 모여 만드는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양선모 면장은 "이번 운동이 인월이라는 한 고향을 가진 인보공동체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살기 좋은 인월면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소방서, 차고 문 추락방지 안전점검 실시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소방청 차고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조치 등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차고문 추락사고로 소방대원 1명이 사망했다. 이와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순창소방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일 차고문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내용으로는 ▲셔터식 차고문 모터 정상작동 여부 ▲벨트 마모상태와 와이어 뒤틀림 여부

▲셔터등에 부착된 볼트 풀림 현상 확인 등을 통해 차고문 하단 앞 경고표시 설치, 하부 안전장치 설치, 추락방지 장치, 신호경광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대원의 안전이 순창군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농지은행사업비 92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사장, 이사장 이춘성)는 관내 농업인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농지은행사업비 92억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지원 사업으로는 ▲2030세대와 청년 창업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매매 및 임대차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9.2억원 ▲과수규모 확대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 4.2억원 ▲은퇴·이농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매 지원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에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49.2억원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도모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23억원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신규농업인의

#### 성공적인 정착 지원

임실군은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신규농업인 6명에게 매달 현장실습수당 8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신규농업인이 귀농 후 초기에 경험 미숙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에게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 창업과정 등을 영농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배우는 교육이다.

임실군은 지난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이거나, 만40세 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연수대상자를 모집하여 연수생 6명을 선발해 관내 선도농가와 연수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5개월을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직접 배울수 있는 실습위주의 멘토-멘티 교육으로 실시된다.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비를 최대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멘토(선도농업인)에게는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